진우 스님 "종단 안정 위해 분골쇄신"

지흥 스님 6주기 추모 다례재
6월 12일, 백양사 교육관서 봉행
교구본사주지·종회의원 다수 참석
18개 본사 주지, 6월 11일 입장문
비난·비방 선거엔 "단호히 대처"

장성 백양사=김내영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월 12일 장성 백양사 교육관에서 봉행된 은사 백운당 지흥 스님 6주기 추모 다례재에서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뜻은 단순히 다례재 참석이 아니라 저에 대한 격려이자 앞으로 종단을 안정과 화합으로 이끌어가라는 당부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월 12일 장성 백양사 교육관에서 봉행된 은사 백운당 지흥 스님 6주기 추모 다례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다례재는 전국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종단 주요 소임자들이 대거 동참해 종단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오는 9월 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진우 스님이 종단 안정과 불교 중흥을 강조한 만큼 향후 종단 운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진우 스님은 참석 대중에게 감사를 전하고 "부족한 점이 많고 지적받을 일도 많지만 믿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종무행정을 올바르게 하고 포교와 전법을 통해 불자를 늘리는 한편, 한국의 선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정신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보내주신 뜻을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이날 은사 스님과의 인연도 회고했다. 스님은 "출가 이후 은사 스님께 꾸지람도 많이 들었고, 1987년 완도 신흥사 주지로 갈 때는 유배를 가는 기분이었다"며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백양사 법맥을 잇게 하려는 큰 뜻이 있었던 것 같다. 은사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 종단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뼈를 가는 심정으로 역량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성오·종열 대종사, 명예원로의원 암도 대종사,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 용주사 주지 성효, 신흥사 주지 지혜, 법주사 주지 정덕, 수덕사 주지 도신, 직지사 주지 장명, 동화사 주지 선광, 불국사 주지 종천, 쌍계사 주지 지현, 범어사 주지 정오, 통도사 주지 현덕, 금산사 주지 화평, 백양사 주지 무공, 화엄사 주지 우석,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 등 교구본사주지 스님들과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중앙종회의원 40여 명,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 백양사 대중 스님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 대중은 헌향과 헌다로 지흥 스님의 수행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겼다.

한편 지흥 스님 다례재를 하루 앞둔 6월 11일 조계종 18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지난 4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종단 화합과 품격 있는 선거 문화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사, 용주사, 신흥사, 법주사, 수덕사, 직지사, 동화사, 불국사,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쌍계사,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 봉선사 등 교구본사 주지 스님은 입장문에서 차기 총무원장 선출 과정에서 소모적인 갈등과 네거티브 경쟁을 지양하고, 한국불교의 미래 비전과 종책을 중심으로 한 책임 있는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지 스님들은 "현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께서는 지난 4년간 한국불교 종단 최고 지도자로서 불교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구상들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셨다"고 평가했다. 그 성과로 △청년 세대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교박람회 △종교와 인종의 경계를 넘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현대인의 삶에 맞춘 쉽고 간단한 명상법 보급을 통한 'K-명상' 확산 등을 꼽았다.

아울러 다가오는 총무원장 선거가 종단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도 밝혔다. 주지 스님들은 "다가올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 한국불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선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경쟁인 만큼 훌륭한 구상과 계획을 제시해 새로운 불교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를 비난하고 흠집 내는 행위를 단호히 배척하고, 저열한 비방으로 불교 전체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교구본사주지협, 농지 조사 대응 등 논의

6월 18일, 선운사서 86차 회의
시·도 국가유산위원 현황 보고도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등운 스님)가 6월 18일 고창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 제86차 회의를 열고 종단 현안과 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 안내 △시·도 국가유산위원회 현황 등이 보고됐다.

총무원 재무부는 농림부가 시행 중인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각 교구본사가 사찰 소유 농지의 불법 전용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자경 증빙자료와 임대·휴경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정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는 농지 투기 근절과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해 2027년 5월까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등을 조사한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총무원 문화부는 불교문화유산의 원형 보존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시·도 국가유산위원회에 불교계의 입장과 전문성을 대변할 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각 교구본사에서 전문 인재를 발굴하고 조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 앞서 회장 등운 스님은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오늘 이 자리가 불교와 종단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기 회의는 7월 30일 화성 용주사에서 개최된다. 선운사=조동제 전북지사장

"도의 국사가 밝힌 등불, 민족 삶 나침반"

조계종 종조 도의 국사 다례재
6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서 봉행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가지산문을 개창하고 조계종 기틀을 세운 종조 도의 국사 다례재를 봉행하고 종단의 법맥과 전통성을 되새겼다.

조계종은 음력 5월 2일인 종조 도의 국사 기일을 맞아 6월 1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도의 국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는 삼귀의·반야심경 봉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의 행장 소개, 추모사, 추모법어, 종사영반, 헌향·헌다·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종조께서 세우신 그 발걸음과 종지를 받들어서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전법도생 하겠다"고 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사에서 도의 국사가 전한 선의 가르침이 현대인의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로 이어지길 발원했다. 진우 스님은 "아무리 크고 깊은 강물도 그 시작은 바위틈에서 솟아난 한 방울의 샘물"이라며 "천년을 이어온 한국 선불교의 법맥도 그 뿌리는 도의 국사의 서원과 수행 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도의 국사는 일찍이 중원 선법의 정맥을 마주하고 이 땅에 지혜의 종자를 심었다. 그 가르침을 이정표 삼아 수많은 대중이 참된 나를 찾는 구도의 길에 올랐다"며 "국사께서 밝힌 등불은 곧 우리 민족의 정신적 상징이자 삶의 나침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참석 대중은 도의 국사 진영에 향과 차, 꽃을 올리며 부처님 법의 대의를 구하기 위해 구법의 길에 오른 국사의 위법망구 정신을 기리고, 조계종 후학으로서 전법 원력을 다졌다.

김내영 기자

태고종 "한양 수도성곽, 유네스코 등재 염원"

상진 스님, 유산청 등에 협조 요청
"유산 보존·신앙 조화 모범사례"


북한산성 성곽. 사진 제공=태고종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한양의 수도성곽(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며 관계 기관에 불교계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태고종은 최근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 공개 행사를 계기로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들이 등재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태고종은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우리 문화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미래 세대는 물론 전 인류와 공유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태고종은 불교가 지향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와 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 적극 동참하고 관계 기관 및 지역 사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태고종은 유·무형유산을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의례와 신앙 활동, 국가유산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산성 내에 위치한 태고종 종단 사찰들과 관련해서도 세계유산 보존과 종교 활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태고종조 보우 국사가 창건한 태고사를 비롯한 북한산성 내 사찰들은 오랜 세월 수도성곽과 함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불교문화유산이다.

임은호 기자

부처님오신날 봉축 시즌 추천도서

묘선, 관음이 되다

경완 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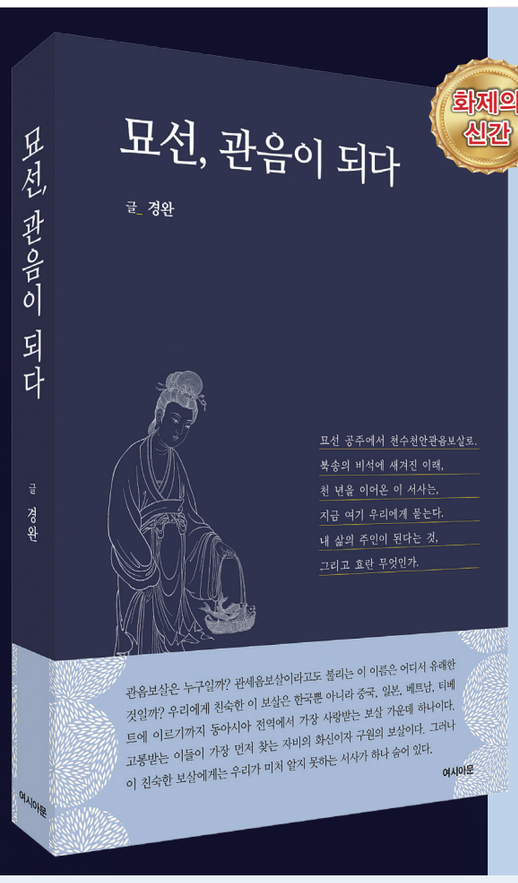
천 년이 서사,관음이 된 한 공주의 이야기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관음보살상 뒤에는
천 년 전 한 공주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

혼인을 거부하고 수행의 길을 택한 묘선.
자신을 죽이려 한 아버지를 위해
눈과 손을 내어준 극한의 자비.
그녀는 마침내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세음보살이 되었다.

「묘선, 관음이 되다」는
관음보살 여성화의 기원을 추적한
국내 최초의 본격 연구서입니다.





왜 관음보살은 여성의 모습이 되었을까?

동아시아 관음신앙의 뿌리를 추적한
국내 최초 '묘선 공주' 본격 연구서

- ✓ 「향산대비보살전」 비문 국내 최초 완역 수록
- ✓ 묘선 서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한국어 단행본
- ✓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정묵 스님 추천
-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추천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관음보살상 뒤에는
천 년 전 중국 항산에서 시작된 한 공주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
_ 정묵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묘선 서사의 깊은 울림을 오늘의 독자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연구 성과다"
_ 주경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이 책의 다섯 가지 포인트

❶ 관음보살 여성화의 서사적 변용을 추적하다
❷ 묘선 서사를 빚어낸 세 갈래 뿌리를 풀다
❸ 여성, 구원의 대상에서 수행의 주체로
❹ 효(孝)와 출가, 두 가치의 화쟁(和諍)을 읽다
❺ 「향산대비보살전」 비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하다

책 정보
저 자 경완 스님
규 격 변형국판(148*210)
발행일 2026년 5월 15일
페이지 296쪽 | 값 18,000원 | 출판사 여시아문
ISBN: 978-89-87067-53-7 (03220)

구입 문의 여시아문 ☎ 02-732-1520 www.mahamall.co.kr

관음의 자비가 당신의 삶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